

라뻬이 아닌 예수의 길로

‘라뻬이 아닌 예수의 길’이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 아닌 예수의 용서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오랜 갈등과 분단 가운데 있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여 이란의 혁명수비대 장성들을 비롯해 12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고, 지난 14일 이란군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무인기 300여대와 순항 및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상대방에게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재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은 ‘우리가 선택한 시기에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이란에 재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에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19일 이란 이스파한의 공군기지에 대한 재보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이란은 보복과 재보복이라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국가인 이스라엘과 이슬람 시아파 종교국가인 이란에 ‘보복의 정의’라는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신앙과 종교적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남한과 북한도 보복과 재보복을 거쳐 갈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은 폭력과 증오의 굴레를 넘어설 신앙적 가치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의 용서도 어렵지만 국가적 차원의 용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과거 남한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행위들이 있었기에 용서와 화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우리 남한의 대응과 태도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할 때입니다.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이라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서로 보복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의 성품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에스더기도운동에서 보내온 기도제목입니다.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북한 전역에 있는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일가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모두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국민적인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 땅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북한 동포들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말씀 나눔

본문: 창세기 4장 23절-24절, 마태복음 18장 21절-22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쉘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고 말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칠 배의 벌이 주어진다 면,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죽였는데 그러한 자신을 해하는 자는 칠십칠 배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인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잔인한 복수의 논리로 바꿔버립니다. 라멕은 이기적인 보복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보복이 아닌 용서를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를 일곱 번까지 하면 충분합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한한 용서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에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종교지도자들과 군중,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입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통해 “복수라는 보편적 종교가 극복되고 보복이라는 보편적 법률이 폐기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 분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부터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한센병 환자의 고통을 입으로 빨아 빼낼 정도로 정성껏 이들을 섬겼습니다.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 때, 반란군이자 공산당원인 안재선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향한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의 장례예배에서 아홉 가지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한때 원수였던 안재선은 진심으로 참회하여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길은 손양원 목사님만이 할 수 있고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보복이 아닌 용서의 길입니다.

남과 복은 형제인데 서로 적대하며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과 복의 형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아직도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서로 갈등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교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조차 용서신학이나 화해신학과 같은 교과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남북한 간의 분단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정의’보다 ‘응징과 보복의 논리’에 더 공감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 모두 상대방을 보복하는 라멕의 길이 아닌 참된 용서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기도합니다.

신학적 관점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이 나타납니다(레 24:19-20). 동해복수법이란 피해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

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레 24:19-20)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동해복수법을 폐지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은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라는 ‘거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까지도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그 가해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동해복수법은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 원수에게 받은 고통을 갑절로 돌려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용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말을 인용합니다. 보복하고 싶은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라는 것입니다.¹⁾ 예수님은 라멕이 의도한 복수만큼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4장 23-24절의 라멕의 이야기는 신약의 마태복음 18장 21-22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대체됩니다. 예수님은 라멕이 언급한 보복의 상징적 숫자를 무한한 용서의 숫자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라멕이 의도한 보복의 강도를 초과하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보복과 적대감의 쳇바퀴를 멈추게 만듭니다.

용서는 인간인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 앞서 받은 것을 우리의 가해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에게 용서를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향한 보복이 아닌 용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²⁾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메아리(echo)가 되어야 합니다.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191.

2) 위의 책, 254.